

#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문화관 교육 연구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석박사 통합과정  
허연

## 논문초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국가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를 배워야 하는데 사회교과 내에는 티종교적 색채가 분명한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필자의 질문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티종교적 색채가 강한 전통문화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사상가들의 이교적 문화를 대하는 문화관을 살펴본다 원리를 도출한 후 이교적 전통문화와 기독교의 대표적 총돌 사례였던 단군상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접근과 초기 선교사님들의 접근을 통해 한국에서의 이교적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기독교 사상가들과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교적 문화를 배타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 창조의 선함과 타락한 부분 그리고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필자는 기독교 대안학교 5학년 사회 교사로서 위에서 도출한 원리를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학생들에게 접근한 교육방법론으로는 기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의 ‘나눔의 프락시스’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교육과정 실행 후 그 결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기독교적 문화관, 전통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단군신화, 나눔의 프락시스, 기독교 대안 학교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국가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를 배워야 하고 사회교과 내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필자의 질문은 “기독교 대안 학교에서 티종교적 색채가 강한 전통문화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런 질문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역사에 개신교가 들어 온지는 130년이 조금 지났다. 우리나라 역사의 대부분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었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문화의 대부분은 무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독교인 교사이며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라는 정체성 속에서 위상승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 과연 기독교학교의 교사로서 위상 승배적 요소를 다분히 보이는 무교적, 불교적 또는 유교적 내용들을 가르쳐야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일까?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교교육과정 중에 숲속산책이 있는데 숲속산책에 가는 길은 사찰로 연결되어져 있고 옆에는 조그마한 돌탑들이 놓여 있다. 그런데 몇몇의 아이들이 돌탑을 발로 쳐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을 본 필자는 전통문화를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느꼈던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 과연 위상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모습으로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혼을 내야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문화화자들과 교사들은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있을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우선 기독교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관에 대해 궁금함이 생긴다. 중세 시대 문화의 기초를 세웠던 아우구스티누스와 대표적인 학자였던 토마스아퀴나스는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을지,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두 학자인 루터와 칼빈은 문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이후 현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화운동연합에서 세운 단군상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은 기독교와 전통문화의 대표적 충돌의 예이다. 단군신화와 단군상에 대한 한국 기독교는 크게 한기총과 KNCC의 대응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초기 선교사님들이 단군신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살펴본다 전통문화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관점은 어떠한지 할지에 대한 원리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사회를 가르치는 기독교사의 입장에서 전통문화에 대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색채가 분명한 전통문화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을 어떻게 갖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의 ‘나눔의 프락시스’적 접근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독교적 문화의 전통에서 파생되지 않은 수많은 삶의 양식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기독교사들에게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미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다수의 공립학교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토마스 그룹의 '나눔의 프락시스'가 가지는 신학적-교육적인 전문성을 모든 교사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의 한계점을 가진다.

## II. 기독교적 문화관

기독교적 문화관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되었는데 가족이나 곡식을 사육하고 재배하는, 곧 '돌본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케빈 벤후저, 2009: 34). 이것은 후에 인간 정신을 통하여 파생된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타일러의 경우에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 획득한 지식, 신념, 기술, 법률, 윤리, 관습,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역량과 습성을 포함하는 복합적 통일체(케빈 벤후저, 2009: 34)"라고 정의 내렸다. 결국 문화란 '인간의 돌봄(다스림)을 통해 파생된 모든 것'이라 정의 내릴 수 있겠다.

기독교인들은 이 문화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문화를 곧잘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세상'은 '죄에서 비롯된 악한 것'이라는 입장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둘은 보통 혼합되어져 있는데 앞의 입장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문화'를 배척하고 분리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뒤의 입장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누리고 변혁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적 문화관'이라고 정의하고 자신의 문화관을 학문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던 기독교 사상가들이 '문화'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에게 '문화'는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하는 '표지'다. 그에게 모든 인식은 '사물'에 관한 인식이거나 그 사물을 지적하는 '표지'에 관한 인식이다(아우구스티누스, 2011: 77).<sup>1</sup> 그런데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서 본다면 사물은 '향유할 사물'과 단순히 '사용할 사물'로 분류되며 전자에 최고선, 즉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모든 소망은 이 최고선을 지향하게 만들어져 있고 타인을 위시한 지상의 모든 사물 곧 '문화'는 이 존재에 도달해서 이 존재를 향유토록 우리를 돕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인식과 사유, 인간의 지성, 아니 그의 삶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관계로 집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아우구스티누스, 2011: 77). 그에게는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것(아우구스티누스, 2011: 69)"이다. 그렇기에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교답다 할 문화를 건설코자 한다(아우구스티누스, 2011: 37).

그렇다면 그는 이교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이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진실하고 우리 신앙에 합하는 것들에 대해 부당한 소유자들에게 빼앗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우구스티누스, 2011: 243). 이방인들의 모든 문화에는 미신적인 찌꺼기와 허위적인 것이 있지만, 진

리에 봉사하는 데 더 적합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에 이것을 그리스도교적 용도에 적합하게 전환시켜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아우구스티누스, 2011: 244-245).

중세시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을 향유하고 사랑하는 데 쓰이는 표지(標識)로 이해된다. 중세 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사물들과 분리시키는 현대 문화관과 달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김재윤, 2016: 36-37). 이것은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의 사상으로 이어진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지적인(intellectual) 삶)'이 인생 최고의 목적, 최고의 복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물질적인 사물들의 모양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들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본질에 맞는 능력들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지적인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본성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김재윤, 2016: 36).

이후 중세 사람들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여 모든 사물에서 그 상징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성유물, 그림, 모자이크, 조각상 등을 민중을 위한 강의 이며 독서로 여기게 된다.(김재윤, 2016: 40) 그러나 중세 초기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부적이나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 축귀와 병을 낫게 하는 이교적 풍습과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고 신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것과 결합하게 되어(김재윤, 2016: 39) 성유물과 조각상, 그림들 자체가 영적이고 신적인 실재를 가진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김재윤, 2016: 40-41). 흥미로운 것은 '과학적 실험'을 죄악시 여겼는데 사물 안에서 신적인 질서나 힘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실험하고 관찰한다는 것은 사물의 목적에 어긋난다(성영은, 2011: 14-16)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1215년 라테란 교황궁에서 개최된 4차 라테란 공의회는 성례전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하게 된다(김재윤, 2016: 41). 이것은 성상, 조각들, 문화예술작품들이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김재윤, 2016: 42). 이 중세 시대는 이교적인 혹은 마귀적인 것으로 교회의 복에서 물러난 모든 생활 경향에 대해서는 매우 혹심한 비판을 가하였지만(아브라함 카이퍼, 2014: 40),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기독교의 통치아래 들으로써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유하고 사랑하는 데 쓰이는 표지(標識)로 이해하였다.

루터(Luther Martin, 1483-1546)는 문화를 보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그는 모든 '문화'에 신적권위를 부여하려는 그 당시 위정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을 주관하고 성령을 자신들의 미친 두뇌에 따라 조련하고 있다(존 딜런버거, 1994: 437)."고 비판한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존 딜런버거, 1994: 438) '두 정부분'을 주장한다.

믿는 자는 드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악에 대적치 않고 스스로 악을 행치 않는 자는 더욱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와 하나님 나라 바깥에 다른 정부를 마련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칼에 복종토록 함으로써 (중략) 두려움 없이 또는 번성하는 가운데 악을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중략)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략) 세상은 혼돈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

1 사물(事物) = res 재산, 소유물, 인간의 인식대상, 이것은 결국 신앙과 행실의 대상인 진리 표지(標識) = signa 어떤 의미를 띠고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것, 그 진리를 가리키는 언어, 특히 성경의 언어

로 하나님은 두 정부를 정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드는 영적정부와 비그리스도인들과 악한 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걸로 평온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세속정부이다(존 딜런버거, 1994: 443).

그에 따르면 ‘문화’는 ‘세속정부’에 속한 것이다. ‘세속정부’의 목표는 칼로 악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정부’와 분리되어져 있으며, 반드시 날카롭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 전체나 세상을 복음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우리에게 늑대, 사자, 독수리, 양을 한꺼번에 몰아 넣는(존 딜런버거, 1994: 444)”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영적인 정부에만 맡겨 놓았을 때에는 “악이 횡행하고 온갖 종류의 꾀패질을 자행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게 된다(존 딜런버거, 1994: 445).” 그 악을 역사적 상황 가운데 온몸으로 느꼈던 루터는 ‘문화’와 ‘영적인 것’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에게 ‘문화’는 ‘세속’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법에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중세시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또 다른 법’에 지배를 받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종교개혁에서 큰 문제로 인식되어졌던 성상, 그림, 조각들 자체에 대해서도 내버려두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김재운, 2016: 49). 루터가 성상숭배에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던 것에 비해 볼 때(김재운, 2016: 48-49) ‘문화’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루터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법에 통치를 받는 ‘세속나라’에 속하였으며, 가치중립적이지만 영적인 것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칼빈(Johannes Calvin, 1509-1564)은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칼빈의 경우는 ‘세상’ 곧 문화를 포함한 세상을 ‘극장’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도처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할 대로 어디를 보나 눈에 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는 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경건히 명상하여 생각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신앙을 위한 으뜸되는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첫째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존 칼빈, 1994: 280).

칼빈에게 이 ‘세상’은 신앙을 위한 가장 우선되는 증거는 아니지만, 경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화’를 누릴 때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용은 방향이 바르다는 것이다.(중략) 하나님께서 양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존 칼빈, 1994: 240).

그는 문화에 단순한 실용성만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고 미(美)와 유쾌함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가치롭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 육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넘쳐 남용하게 된다(존 칼빈, 1994: 241).이 부패한 욕심은 우상을 만들어 내는데 칼빈은 이것에 대해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 내는 영원한 공장(工場)(존 칼빈, 1994: 183)”이라고 까지 표현한다. 결국 그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하기에 누려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안에서 누려야 한다.’고 요약 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iper, 1837-1920)는 세계 3대 칼빈 신학자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다. 그는 목사이면서 기독교 언론인이었고,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자유대학의 설립자였다. 그의 정치, 언론, 교육 등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은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준다. 그의 문화관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루이스 프람스마, 2011: 167)’이다.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무신론적 인본주의로 급속하게 세속화된 유럽사회를 바라보면서(아브라함 카이퍼, 2014: 18-20)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루이스 프람스마, 2011: 199).”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였다.

그의 문화관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영역 주권’이며 또 하나는 ‘일반은총’이다. ‘영역 주권’은 ‘교회와 중세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 사회, 학문, 문화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종교개혁이후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 둘 다를 포기하여야 한다(김재운, 2015: 69)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 정치, 학문(교육), 예술 등은 전체 우주를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영역에 고유하고 독특한 주권과 자유를 허락하셨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55-207). 각 영역은 다른 영역을 지배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 영역은 창조로부터 유래하고 창조에서 이미 주어진 독자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김재운, 2015: 83). 그는 한 영역이 또 다른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넘어서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사탄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표현까지 사용한다(김재운, 2015: 80).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마치 카이퍼가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역주권은 하나의 일관된 질서인 ‘일반은총’으로부터 주어지기에 막연한 상대주의로의 귀결을 막는다(김재운, 2015: 84-85).

그는 ‘문화’라는 말 대신 ‘일반은총(common grace)’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중심적 표현보다 하나님 중심적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서이다(고재수, 2008: 133). 그에게 ‘일반은총’이란 칼빈이 말했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언약(김재운, 2015: 87)’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와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다(김재운, 2015: 87). 그는 성경의 ‘노아인약’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의 대상이 ‘생’ 족속 뿐 아니라 ‘함과 야벳’, 심지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 까지 포괄되어지는 것에 주목한다(김재운, 2015: 88-89).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축복인 것이다. 이들이 일구어낸 ‘문화’에 대해 하나님은 타락이후에도 다시 한 번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다. 그렇기에 인류전체가 충분한 문명과 문화적인 삶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반은총은 세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임한 지주를 완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기에(아브라함 카이퍼, 2014: 41) 그의 ‘문화’에 대한 관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교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에게 ‘이교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경쟁하는 전 포괄적 삶의 체계이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26). 이교의 삶의 체계는 개신교의 삶의

세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29). 이교문화는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추측하고 가정(假定)하고 경배한다. 그러나 피조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독립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오르지 못한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30). 또한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거하면 신적 우월성은 인간 가운데 높은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낮은 것은 불경건으로 나타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친한 예속(隸屬)상태에 빠진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37). 그리고 세계를 너무 높게 평가하며 세계를 두려워하여 세계안에서 길을 잃는 형태로 나타난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40). 그러나 칼빈주의에서의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높은 위엄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직접 교제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아브라함 카이퍼, 2014: 31),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길 잃은 죄인이기에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38).<sup>2</sup> 또한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온 세상 안에서 은혜로 저주가 역제되어 세상 생활이 독립적으로 존중된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41). 그러나 '문화'는 '이교의 삶의 체계'에서보다 '칼빈주의의 삶의 체계'에서 더욱 아름답고 질서 있게 발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문화'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카이퍼의 문화관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감추어 두신 보호와 은혜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의 각 영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유기체적 교회)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한 힘을 길러서,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 해야 할 역할이자 책임이다(아브라함 카이퍼, 2014: 43).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 사상가들의 문화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원리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문화는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문화명령을 통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고 그것은 타락과 홍수심판 후에도 노아언약을 통해 계속된다.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문화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둘째, 문화에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부분이 있다. 이 타락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할수록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셋째, 문화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영역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각 영역의 문화를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적 영역의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정부가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각 영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각 영역마다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 섬겨야 한다.

### III. 전통문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대응 - 단군상 논쟁을 중심으로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한문화운동연합'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통일기원국조단군상 369기를 기증하여 건립하였다.(허연, 2017: 79) 이것은 기독교와 단군종교와의 갈등양상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이상국, 2003: 39) 이 장에서는 이때의 한국 기독교 대응방식과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단군신

2 권위는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다.

화에 대한 대응방식을 살펴보면서 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전통문화를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원리를 얻고자 한다.

'한문화운동연합'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단학기공연합회, 한문화운동본부, 풍류도, 홍익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밝한문화교육아카데미 등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이상국, 2003: 44) 이 단체는 130여개가 넘는(이강호, 1987: 71-79; 허호익, 2000: 367) 단군 관련 종교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단학선원과 같은 생활운동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1997년 IMF로 인하여 전 국민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단군 민족주의의 의의"를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정영훈 교수의 주장으로 살펴보면(정영훈, 2002: 265-266) 첫째, 단군이 있으므로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을 공유할 수 있었고 외부의 거대한 세력에 대항하여 독자성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었다. 둘째, 근대 이래 단군의 자손이라는 동질적 자기인식이 토대가 되어 통일과 결속을 도모해 왔다. 셋째,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결속을 도모하는 의식사상운동을 '단군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넷째, 단군민족주의는 근대 민족 운동사를 통하여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근대화를 향한 동력을 조성하는 주요원천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단군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단군'의 실사(實史)성이었다. "재야사학자들(이진구, 2004: 285)"로 불리는 단군종교관련 사학자들은 '단군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가 '불합문화론(不滅文化論)'에 영향을 받은 『규원사화』나 『환단고기』와 같은 위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강돈구, 2000: 16)과 '종교적 신념'의 발현(發現)형태로 주장(김성래, 1999: 115-179)되고 있다는 점 등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 기원 국조 단군상(강호준, 2002: 13-14)<sup>3</sup>은 그런 상황에서 단군의 실사(實史)성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한문화 운동 연합'은 국조인 단군상을 통해 무너진 국민들의 주체성과 민족의식을 회복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통일을 기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허연, 2017: 80). 그들은 취지문을 통해 단군신화를 실제역사로 주장하며 그것에 반박하는 주장은 '일제 식민사관'으로 규정짓는다(허연, 2017: 53). 그리고 전국에 3600여기에 달하는 단군상 건립 계획을 세운 후 1997에서 1998년에 걸쳐 369기의 단군상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세운다.

한문화운동연합의 단군상 건립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대응 때문이기도 하였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공식적인 대응을 한 두 곳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체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은 단군상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며 '단군상 철거운동'을 실시한다. 한기총은 다수의 한국교단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이 한기총의 입장이 한국기독교의 공식적 입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이상국, 2003: 52). 그들은 전문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만든 다음 1999년 7월 30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 대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 성명서를 살펴보면 "단군을 신으로 숭상하는 무리들이(중략) 건립계획 하고 있다.(중략) 우상을 타파하는 것만이 진정 애국 애족하는 길임을 국민에게 알려고자 한다(한기총, 1999: 1)."는 내용을 통해 단군상을 우상숭배 또는 신격화로 보고 정치적, 물리적 대응을

3 '단군상'의 정식 명칭

해갈 것(김영재, 2002: 19)을 발표한다. 한기총은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김영재, 2002: 19-21) 단군상을 훼손하다가 목회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구속자에 대한 석방운동과 함께 주일학교 통합공과와 개발과 출간을 통한 교육적 대응도 진행한다. 한기총의 대응은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강력한 대응을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적, 역사적, 교육적인 영역까지 진행해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화관은 앞서 살펴보았던 중세시대 가톨릭의 문화관과 흡사하다. 이 교적인 생활 경향에 대해서는 매우 혹심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기독교의 통치아래 두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내에서의 개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는 한기총의 대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99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성명서(기독교 교회 협의회, 1999:1-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군신화는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사실이 혼재되어져 있기에 신화적 요소만 들어 무조건 거부하거나 학문적 검증 없이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가지는 민족사적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단군민족사상을 말살하려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여 반민족적인 행위로 비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상고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군에 대한 민족적 긍지는 살리되 '신격화'되거나 '국수주의'가 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셋째, 단군상을 세우는 주체는 아직 국사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역사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특정종교의 경건인 '천부경'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건립의도가 순수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KNCC의 경우는 종교적인 영역과 역사학적인 영역을 분리한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신격화'를 반대하고 스스로 철거할 것을 요구하지만, 민족사적 의의를 존중하며 역사학적 연구를 계속하여 학문적 영역 내에서 결과를 판단하도록 각각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화관은 루터와 칼빈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로 이어지는 문화관과 흡사하다. 각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을 다스리는 원리를 각각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군상이라는 문화가 하나님으로 온 선한 것이 있지만 타락한 영역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안에서 회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한문화운동연합'의 대응이다. 2001년 '홍익문화운동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국민과 함께 회복한 민족정신의 승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건립사업 영역을 게시해 놓았다.<sup>4</sup> 연혁을 분석해 보면 첫줄에 1998년 11월 경남 밀양시 동강 중학교에 제 1기 단군상을 건립했다는 서술 이후 3페이지에 걸쳐 기독교 단체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단군상 건립을 반대하고 훼손하였는지 만을 나열하고 있다. 기독교가 폭력적이고 반민족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대응은 제법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 기독교 단체 또는 목회자가 단군상을 훼손했다는 언론 보도가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단군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어 누가복음을 번역하였던 존 로스(John Ross, 1842-1915)는 영어의 GOD을 '하느님(Hannanim)'으로

번역한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을 일컫는 독특하고 고유한 이름인 하느님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전능자요 무소부재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뜻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은선, 2015: 48). 이 하느님은 단군신화의 환인을 부르는 용어였다. 데그의 '상제'라는 용어의 영향을 받아(설중수, 2012: 117) 원시 종교에 원시 유일신론적 요소가 있었으나 후대에 변질되었다는 그의 주장(안성호, 2014: 233)은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과 상인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옥성득, 2012: 104).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하느님'은 영어의 GOD을 표현 할 수 있는 훌륭한 용어였기에 차용하여 사용했던 것이다(이은선, 2015: 49).

고종을 도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직접 헤이그 특사에까지 참여한 선교사였던 험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의 경우 1901년 그의 선교잡지 *The Korea Review*에 단군신화를 소개한다(옥성득, 2001: 304). 그는 또한 1906년 *The Passing of Korea*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단군은 강화도 마나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이은선, 2015: 52)고 이야기 하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종교적 개념은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가르칠 때 거의 보편적으로 이 용어를 수용할 정도로 여호와의 권능 그리고 속성이 일치한다는 견해를 이야기 한다(이은선, 2015: 53).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은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신화일 뿐이라고 1900년 「그리스도신문」에서 부정한다(옥성득, 2001: 305). 그러나 한국인 주체로부터 하느님의 개념을 전해들은 그는 험버트와의 치열한 논쟁과 자신의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1911년 첫 한글 성경 출판 기념식에서 신명(神名) '하느님'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옥성득, 2001: 311). 그 후 1924년 그의 일생에 걸친 한국 문화와 역사연구의 열매인 *History of Korean People*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한국의 첫 위대한 조상은 단군으로 불린다. 그가 신화이든 실제이든지 간에, 희미한 선사 시대로부터 솟아나서 한국과 만주 사이 백두산 위에 서있다. 여기서 그는 단순한 백성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첫 교훈을 주었고, 그들은 그를 신인(神人)으로 불렀는데, 그것은 신적 사람, 천사, 신령, 혹은 신의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곧 그는 신성한 삼일신의 제 삼위였다. 『고금기(古今記)』에 의하면 환인은 하느님이고, 환웅은 신이며, 단군은 신인이다. 이 셋은 신성한 삼일신을 이룬다.…… 단군의 가르침은 하느님 숭배로 알려져 있는데, 전능자 앞에 절하며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한다. 이 위대한 신 불가시(不可示)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공자, 부처, 노자와는 별개로 단군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한국인에게 영감을 주는 천제적 인도자였다(옥성득, 2001: 314).

그는 아직도 단군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는 단군신화의 이야기가 삼위 일체 하나님과 유비(類比)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단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드리는 데 모든 세대에 영감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1893년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는 '하느님'이란 용어 사용을 거부 한다.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유일신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신교 내지는 혼합주의의 허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이은선, 2015: 51). 그 후 험버트와 게일의 논쟁에 영향을 받은 그는 17년간 단군신화에 대해 꾸준히 연구한다. 그리고 1910년에 출간한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4 [http://www.hongikngo.net/menu5\\_7\\_5.htm](http://www.hongikngo.net/menu5_7_5.htm), 2017년 6월 14일.

“원시시대에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계셨는데, ‘제식’ 곧 창조주였다. 그에게서 나온 한 다른 존재인 환웅이 계셨는데, 그는 이 세상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신령(the spirit)으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발견하고, 성육신(incarnation)을 바라섰다. 자기 부정으로 인하여 동물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이 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환웅은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었고, 그녀는 수태하여 단군을 낳았으니, 곧 한국의 첫 임금인 분이시다(옥성득, 2001: 306).

그는 종교하강설의 입장(김홍수, 2006: 48)을 취한다.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순수유일신앙(a pure monotheism)’를 소유했지만 그 후 사머니즘으로 타락(하강)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단군신화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단군신화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우 유사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의 예비였다고 고백한다(옥성득, 2001: 308).

앞서 소개했던 선교사들 이외에도 레이놀즈(한국명: 이눌서, 李訥瑞, William David Reynolds, 1867-1951)의 경우는 “단군의 초자연적 탄생 이야기는 창세기 6장 2절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 혹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한 희미한 예언처럼 읽힌다(옥성득, 2001: 309).”라고 이야기 하며 클라크(Clark, Charles Allen, 郭安進, 1908-1990)선교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단군과 그의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처음 기독교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은 그 하느님이 유일하시며 성경의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인식하였음(옥성득, 2001: 309)을 이야기 한다.

존 로스, 헐버트, 게이, 언더우드, 레이놀즈, 클라크에 이르는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 선교사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단군신화를 단지 신화 또는 우상숭배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이교적 문화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발견한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짧은 시간동안에 그들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하여 비록 무교와 여러 종교에 의해 범신론과 다신론의 최고신 역할을 하던 단군에게서 삼일신적 유비와 유일신적 요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와의 ‘접촉점’으로 삼아 ‘기독교 복음의 준비’로 삼았다(옥성득, 2001: 316).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 용어에 대한 통일로 이어졌고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한국 문화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와 끝까지 싸웠다. 그러나 배척하고 정치적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했다. 이 ‘하느님’ 신앙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국주의 가운데서 3.1운동의 민족주의영성에 기초가 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 신사참배 투쟁운동의 기반이 되었다(옥성득, 2001: 317). 1919년 3.1운동에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주재 저널리스트 스코트 여사(Mrs. R. Scott)는 여러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을 만난 다음에 이와 같이 평가한다.

일본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중심의 창조적 능력으로서의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한국인들은 유일하신 최고신인 하느님을 늘 섬겨왔다. 한국인의 이 하느님은 유대교 구약의 엘로힘과 비슷하다. (중략) 깊이 자리 잡은 유일신 사상 위에 복음을 세운 개신교 선교사들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옥성득, 2001: 313).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단군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는 미국 근본주의의 영향과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문제의 영향을 받아 배타적 입장으로 선화하게 된다(옥성득, 2001: 316). 이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다. 다만 이 입장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기총의 입

장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대표적 타 종교 문화인 ‘단군’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 문화관 교육에 대한 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믿음을 핵심에 둔 교육(이숙경, 2015: 33)”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그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겠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통문화에는 일반은총에 의한 창조적 선함이 들어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단군신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비하신 일반은총이 드러난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 선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표지(標識)로 설명할 수 있다. 단군이라는 사물(事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착하도록 가리키는 표지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다. 또한 단군신화와 단군상에 대한 논쟁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자신을 알도록 도와준다. 왜 우리를 한 민족이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타종교적 문화를 보았을 때 분노가 올라오는지, 왜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회에서는 단군신화에 대한 강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이 민족과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마 22:39).

둘째, 전통문화에는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역사적 흐름 가운데에서도 지속되는데 이것은 단군신화가 범신론과 다신론의 최고신이 되어버린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단군상 건립 또한 민족적 의의를 가장한 종교적 타락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또한 나와 민족이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사랑하게(우상숭배) 이기주의와 국수주의로 변질되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한다.

셋째, 우리는 지혜롭게 전통문화에 대응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전통문화는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에는 하나님이 그 영역에 주신 독특하고 자율적인 주권이 부여되어져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분별하여 대응해야 한다. 한기총의 배타적, 정치적 대응은 자칫 기독교가 반민족적이며 폭력적인 종교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각 영역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KNCC의 대응은 종교적 영역과 학문적 영역을 분리하여 각 영역에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례도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선하심을 잘 발견하여 우상숭배적 요소를 제거하고 회복시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예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요 13:1). 또한 “만물을 회복하실 분(행 3:21)”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문화 변혁자’의 비전을 깨닫게 된다.

#### IV. 기독교적 문화관습들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과정 개발

##### 1. 교육과정 개발의 배경

교육의 대상자는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이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 학교는 ‘기독교적 가치를 습득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을 ‘교과’와 ‘비교과’ 전반에 시행하고 있다.5정부의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로서 현재 인가를 추진 중에 있기에 현행 초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독교적 문화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학년 사회교과에서는 전(全)시간 한국사를 다루고 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이후인 근현대사는 6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5학년 전 사회과 전(全)과정은 타종교적 문화가 반영되어진 한국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전통적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문화관이 5학년 학생들에게 형성될 필요성을 느꼈다.

지도대상은 5학년 석회반 12명의 친구들이다.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이 교실은 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이 전원 기독교인이다. 수업 전 2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첫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관련된 신화나 역사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답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둘째, 단군상 또는 민간 종교의 돌탑 등 타종교의 상징물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라는 질문이 그것이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답변		
	답변	인원	이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관련된 신화나 역사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4	- 물론 들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워야겠다. - 우리조상의 역사고 신화는 재미있고 배울게 많을 것 같아서 - 내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니까 배워야 한다. - 우리 역사고, 역사의 문화 중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어서
	아니오	6	- 진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 관심이 없다. - 이미 잘 알고 있다. -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 기초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신화니까 배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군이 신 같고 꿈이 사람이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모르겠다	2	- 잘 모르겠다. - 그냥 그렇다. 틀린 역사이기도 하지만 배워 두면 좋으니.

5 [http://www.dooraeschool.org/html/sub.php?bo\\_table=0201](http://www.dooraeschool.org/html/sub.php?bo_table=0201) 2017년 6월 16일.

단군상 또는 민간 종교의 돌탑 등 타종교 상징물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멋지다	1	- 그냥 멋지다.
	잘 보존해야겠다.	4	- 우리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 우리 역사를 잘 보존해야 역사가 오늘의 거울이 되고 내일의 길잡이가 된다. - 유적 유물이니까 보존해야 한다.
	모르겠다.	5	- 각자 사람의 마음이니까 잘 모르겠다. - 어쩔 때에는 화가 나고 어쩔 때에는 멋지다고 생각한다. 각자 종교가 있고 그 종교는 나와 상관없으니. - 그냥 그렇다.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냥 돌 석상이기 때문이다.
	부수고 싶다.	3	- 그냥 부수고 싶다. - 이상하다. 괴물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 없애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1> 타종교 문화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위의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면 다른 종교에 관련된 신화나 역사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종교적 유물에 대해서 적대적 폭력적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를 살펴 볼 때 이것은 역사학습의 거부감보다는 종교적 이유로서의 거부감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타종교 문화에 대해 극단적 반응을 보이거나, 무관심 하거나, 가치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 가야 할까? 필자는 기독교 교육학자 중 하나인 토마스 그룸(Tomas H. Groome)의 ‘나눔의 프락시스’를 이 교육과정에 적용해 보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삶의 경험’ 곧 ‘문화’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그것을 치열하게 살펴 기독교적 전통과 만나게 하고 신앙관과 문화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시 삶으로 결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문화관 교육에 매우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 2.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

프락시스(praxis)란 실천이 있는 실천을 의미한다. 그룸의 나눔의 프락시스 접근은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으로 가져가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으로 가져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토마스 그룸, 2014: 386). 이 접근의 배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었다. 그룸은 다음과 같이 그 장면을 설명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가는 제자들 옆에 다가와 함께 걷는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알아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대신에 슬픔에 빠진 두 제자가 그들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이 최근에 겪은 '삶'을 이야기 하게 하신 후 이야기와 비전을 성찰하게 하신다. 제자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과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기대했던 것'과 관련된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이야기한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신앙 전승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해석해 주시고, 메시아는 영광 속에 들어가 위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이로써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로 오셨던 메시아(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고난 받는 종)사이의 변증법을 놓으신다.

이제 제자들의 삶과 더불어 그들 신앙 전승의 이야기와 비전이 탁자 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그네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윽고 두 제자는 알아보아야 할 것을 항상 '알아차리게 되는' 특권적 자리인 빵을 떼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 제자들은 이제 새롭게 되고 깊어진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늦은 밤의 위험한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들 스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된다(토마스 그룹, 2014: 389-391).

여기에는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의 접근이 있다. 이 장면에서 통찰을 얻는 그룹은 이것을 5가지 교육 활동으로 소개한다.

**(1) 현재의 행동에 대한 명명(토마스 그룹, 1991: 300) -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기**

'활동1'의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 본인의 현재 삶에서 '생성적 주제'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프락시스 또는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수 있다.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 '주제'를 인식함으로써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어 그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묘사와 의식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주제에 대해 그들의 '현재 프락시스'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묘사, 인식, 평가 등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그것에 관해 느끼고 있는 바를 표현 할 수 있다(토마스 그룹, 2014: 455).구체적인 질문으로는 "무슨일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2) 참가자들의 이야기들과 비전들(토마스 그룹, 1991: 304) - 스스로 성찰하도록 격려함**

'활동2'의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표현으로,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생성적 주제'에 대해 함께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내용을 대화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비판적인 성찰은 이성과 기억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이 세 가지가 종종 통합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성찰이나 사회적인 성찰 둘 다 가능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둘을 어느정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토마스 그룹, 2014: 459).

이성적 질문은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것이 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며, '생성적 주제'에 관련하여 그들의 현재 프락시스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이끄는 질문이나 활동이다(토마스 그룹, 2014: 460). 예로는 "그것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더 어렵게 되거나 쉽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등이 있다.

기억에 관련된 질문과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생성적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경험을 회상하도록, 삶에서 그 주제에 대해 그들이 가진 현재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생각하도록, 또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경력에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응답을 형성하게 했는지를 인식하도록 했는지를 묻는다(토마스 그룹, 2014: 460). 질문의 예로는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등이 있다.

상상력에 대한 질문이나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를 인식하도록,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숙고하도록 하는 일이다. 상상력은 또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 주제에 관련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며,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토마스 그룹, 2014: 461-462). 예를 들면 "만약 ~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가장 최상의 상황 또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등이 있다.

이런 비판적 성찰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연령 때부터는 사회문화적 분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현재의 프락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적 성찰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내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의식 깊은 곳을 살피고, 외적으로는 공적 세상의 시스템적 특성과 그 세상이 가진 관심사를 깨닫도록 할 수 있다(토마스 그룹, 2014: 464).

**(3)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토마스 그룹, 1991: 310) -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침**

'활동3'에서의 과제는 '생성적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이 지닌 가르침과 영적 지혜를 사람들의 삶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와 비전은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고 실득력을 가진 방식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신앙은 그들의 영혼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들의 지성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삶에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어야 한다(토마스 그룹, 2014: 468). 이것의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설명, 패널토론, 실제경험, 스토리텔링, 연극형식의 소개, 오디오, 비디오, 스틸사진과 행위예술까지 포함할 수 있다.

**(4) 기독교 이야기와 참가자들의 이야기 사이의 변증법적인 해석(토마스 그룹, 1991: 315) - 알아차리게 함**

'활동4'의 의도는 참석자들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과 지혜가 그들의 일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토마스 그룹, 2014: 475). 여기서의 교육방법은 앞선 활동들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소개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사람들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활성

화시키고 이끌어내는 것이다(토마스 그룸, 2014: 476). 이 활동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화와 제시한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와 비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토마스 그룸, 2014: 476)” 활동4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하여금 활동3에서 소개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어떻게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고, 그 신앙을 개인적 확신과 함께 영적 지혜로서 그들 삶에서 내면화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토마스 그룸, 2014: 476).

**(5) 기독교의 비전과 참가자들의 비전 사이의 변증법적인 해석학(토마스 그룸, 1991: 321) - 살아 가게 함**

‘활동5’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에서 만난 가르침과 영적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인식적이거나, 정의적이거나, 행위적이거나, 종합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다보며 때때로 ‘활동4’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데 그룸 또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꼭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토마스 그룸, 2014: 477). ‘활동5’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동시에 반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실제 개발**

타종교적 전통문화에 대한 기독교 문화관의 교육적 원리를 그룸의 나눔의 프락시스적 접근방식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성찰한 다음 기독교적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문제와 만나게 해 성찰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한다.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하기**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이 지면에 보니 00가 숲속산책에서 돌담을 밟고 차서 무너트리던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혹시 너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이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특별히 타종교 전통문화와 부딪혔던 경험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돕는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본인의 현재 삶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경험들을 표현할 수 있다.

**(2) 문제에 대해 함께 성찰하기**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니?”, “그때의 감정은 어땠니?”,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지나갔을까?”,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그 모습을 본 친구들

은 어떻게 반응 했었니?”, “만약 그 돌담을 세웠던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만약 그것을 보았다면 뭐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니?”,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등의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그 상황에 명백한 현재의 사실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것은 그 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그 행동을 유발한 이유 곧 과거의 기억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왜’ 라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근거를 두고 있는 가정들을 깊이 성찰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그 행동에 어떤 신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까지도 돌아 볼 수 있다. 이 현재와 현재 안에 있는 과거를 드러내기 위한 성찰은 현재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창조적 상상의 기반이 된다.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 ‘그 상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와 같은 질문은 철저히 현재의 삶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이 질문들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조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공감적 경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 질문의 의도가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성찰은 멈추고 ‘방어’가 시작된다.

**(3) 기독교적 이야기 전하기**

세 번째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적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한다.

“1988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단군상을 세우려는 운동이 일어났었어. 300여개의 단군상을 세웠고, 1500여개를 더 세우려고 했었지. 혹시 그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니?”

“어떤 기독교인들은 단군상이 우상숭배라고 주장하면서 단군상의 목을 베거나 코를 잘라가는 행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는 그렇게 하던 장로님과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생겼지.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기독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했어. 단군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줬던 부분은 존중하고, 역사를 왜곡하여 종교적인 의도를 드러냈던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그들 스스로 행동을 멈추라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어. 사람들이 모두 유교나 불교를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믿음의 조상이 ‘단군’인 거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

“선교사님들이 한 20년 남게 연구를 하다 보니 재미있는 것이 발견되었어, 단군의 아버지가 누구였지? 맞아 환웅. 그러면 환웅의 아버지는?”, “그래, 환인이었지? 그런데 이 환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일 뿐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었고 홀로 계신 분인데, 그의 아들인 환인이라는 신이 세상에 내려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 신이면서 사람인 ‘단군’을 낳는 거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그래, 예수님 이야기랑 비슷하지?”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성경에 쓰기로 모두 마음을 합쳐서 결정해,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된 이야기야. 그럼 ‘환인’이 하나님일까? 아니지! 하지만 전통문화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있는 우상 숭배적 또는 미신적 요소를 잘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거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에 사도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하러 가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발견했지. 사도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상숭배에 분노하셨는지? 그래서 다 우상을 때려 부수셨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용해 복음을 전하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알지못하는 신'을 이용해 복음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다른 종교의 문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표지판은 하나님이 아니지? 하지만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제거해 내야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자는 거야!"

"혹시 루터라는 이름 들어봤니?", "그 분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법과 일반사람들과 일반 문화를 위한 법이 따로 있다고 봤어, 그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들에게 '미쳐서 성령님을 조종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 했어. 그분 입장에서는 단군상을 훼손했던 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른 종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각자의 영역은 하나님이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셨어."

세 번째 활동에서는 삶의 문제와 관련된 기독교의 이야기를 전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독교 문화관과 단군상에 대응했던 한국 기독교의 이야기를 위의 이야기처럼 질문과 대화로 풀어 5학년 수준에 맞게 전달 할 수도 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나누었던 삶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이야기야 하며, 이 이야기가 너무 상투적이거나 늘어져서 아이들이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4) 기독교 이야기와 우리들 이야기 만나기

네 번째 활동에서는 앞에서 나누어졌던 이야기와 다시 지금의 삶의 이야기가 만날 수 있도록 진행한 다. "만약 너희가 그 단군상을 보았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니?", "두 가지 대응이 있었다고 했잖아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대응했던 것이 더 좋은 것 같니?", "만약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했겠니?", "너희가 사도바울 선생님이라면 아덴에서 어떻게 했을까?", "만약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면 아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폭력적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라고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우리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은 숲속산책을 가는 도중 만나게 된 곳당이나 돌탑 앞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무엇이니?", "그렇게 한다면 어떤 좋은점(또는 문제점)이 생길까?"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네 번째 활동의 핵심은 학생들로 하여금 앞에서 소개한 기독교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돕고, 그 문화관을 개인적 확신과 함께 지혜로서 내면화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

#### (5) 살아가기

다섯 번째 활동에서는 기독교 문화관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성경과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에서 만난 배움과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숲속산책을 갈 때 늘 지나는 곳당에서 나오는 무속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까지 적대적 폭력성을 가지고 부수려는 친구를 못하도록 말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

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5학년 석회반 친구들의 경우는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뒤 실시한 피드백에서 극단적인 반감과 폭력성을 가진 학생이 1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것은 폭력성과 배타성에 대한 감소가 이 문화관 수업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적 요소도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한 학생은 5명이었다. 단지 가치중립적인 입장과 무관심한 입장 그리고 극단적 입장만을 취하던 12명의 학생 중 3분의 1이상의 학생이 문화에 대한 통합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아직은 어린나이의 5학년 학생들에게 이런 통합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과연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로서 우상숭배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전통문화라는 이름아래 있는 불교적, 유교적, 무교적 내용들을 가르쳐야하는 것일까? 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문화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에 있음을 인식하고 기독교사상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중세 시대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화관과 종교개혁시대의 루터와 칼빈의 문화관, 그리고 근현대시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을 살펴봄에 기독교 문화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의 문화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문화에는 타락한 요소가 있어서 곧잘 우상숭배적 요소로 나타나기에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회복하시기 원하시지만 각 영역에 따라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군상에 대한 기독교 단체들의 대응과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화관에 따르면 타종교적 전통문화들은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 알 수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기독교 문화관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토마스 그롬의 '나눔의 프락시스' 접근은 펜찰은 대안을 제시한다. 일방적 전달이 대신 신앙교육들과는 다르게 삶의 문제를 질문을 통하여 성령의 조망하심 가운데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 기독교의 전통과 만나게 한 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로 이어가는 과정은 관점을 바꾸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교육과정을 진행한 학생들은 후에 이어지는 타 종교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한국사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아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사례(實例)를 들어 보겠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가적 종교 행사였던 팔관회는 국토를 지키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다. 그러나 그 팔관의 원래 뜻은 불교의 여덟가지 계율로서 "살생하지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음란한 짓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마시지 말라, 화려한 장식과 유희를 즐기지 말라, 좋고 편안한 자리에 앉지 말라, 오후에 음식을 먹지 말라(김우택 외, 2016: 152)"라는 계율을 지키는 행사였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십계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팔관회에 대해 배울 때 학생들은 그 사실을 선생님께 묻지 않았음에도 "선생님 십계명이랑 비슷해요"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럼 십계명과 어떻게 다를까?" 라는 교사의 질문에 "1계명과 2계명이 없어요." 라고 답했다. "1계명과 2계명이 없는 팔관회가

어떤 행사로 변질 되었는지?”, “어, 선생님 이상해요. 원래 좋은 건데 우상숭배를 하는 행사로 변해버렸어요.”라는 답변 속에서 이 교육과정의 효과를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독교적 문화관을 통해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은 문화를 통해서도 기독교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는 기독교사들이 타종교적 전통문화에 대해 극단적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국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르쳐야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강호준 (2002.7). “단군상 문제의 실상”.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단군상 철거 투쟁위원회- 단군상 철거 대응자료집Ⅱ』.
- 고재수 (2008). 『그리스도와 교회와 문화』, 서울: 성약.
- 기독교교회협의회 (1999. 10. 15). “보도자료-단군상 건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김성례 (1999). “한국무교 연구의 역사적 고찰”. 『韓國宗敎研究』1권.
- 김영재 (2002.7). “단군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문제특별대책위원회』.
- 김우택 외 3인 (2016). 『용선생의 시골벽적 한국사 4』, 서울: 사회평론.
- 김재운 (2015). 『개혁주의 문화관』, 서울: SFC출판부.
- 김재운 (2016). 『종교개혁과 문화』, 서울: SFC출판부.
- 김홍수 (2006. 9). “호레이스 G. 언더우드의 한국종교연구”. 『한국기독교와역사』 제25호.
- 루이스 프람스마 (2011).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서울: 복있는 사람.
- 설충수 (2012. 4). “제임스 레그(James Legge)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신관비교 연구”. 『장신논단』 44권 1호.
- 성경 개역개정판.
- 성영은 (2011). 『케플러, 신앙의 빛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다』, 서울: 성약.
- 아브라함 카이퍼 (2014).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안성호 (2014. 3). “존 로스의 중국 유교 원시 유일신론과 중국어 성서번역의 용어논쟁에 관한 입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호.
- 아우구스티누스(2011). 『그리스도교 교양』, 성영 역 경북: 분도출판사.
- 옥성득 (2001). “초기 한국교회의 단군신화 이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이만열 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옥성득 (2012), “Competing Chinese Names for God: The Chinese Term Question and Its Influence upon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3/2
- 이강호 (1987). “단군 신앙의 실태분석”. 『정신문화연구』 32권.
- 이만열 (2001).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상국 (2001). “한국기독교의 단군신화 이해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숙경 (2015). 『신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그리스.
- 이은선 (2015).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지역-그의 에큐메니즘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역사학회 제32차 및 한국교회사학회 제125차 공동학술대회.
- 이진구 (2004). “단군상 논쟁을 통해 본 신화와 역사 담론”.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소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영훈 (2002.12). “최근의 단군관련 인식혼란과 과제” 『고조선 단군학』 제 7집.
- 존 딜런버거 편 (1994). 『루터 저작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존 반 다이크 (2005). 『가르침은 예술이다』, 김성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존 칼빈 (1994). 『기독교 강요』, 김중홍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존 칼빈 (1994). 『기독교 강요』, 김중홍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카를 바르트 (2013).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김장생 역, 서울: 한국문화사.
- 케빈 벤후저 편 (2009). 『문화신학』,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 토마스 H. 그룸 (1991).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토마스 H. 그룸 (2014). 『신앙은 지속될 수 있는가』, 조영관외 역, 서울: 카톨릭 대학교 출판부.
- 한기총 (1999. 7. 30.). “보도자료-단군상건립반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허연 (2017). “신화에 대한 기독교적 역사교육연구 -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허호익 (2000. 6). “단순신화의 단군왕검의 고의(古義)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1).

[http://www.dooraeschool.org/html/sub.php?bo\\_table=0201](http://www.dooraeschool.org/html/sub.php?bo_table=0201). (검색일 2017.6.16.)

[http://www.hongikngo.net/menu5\\_7\\_5.htm](http://www.hongikngo.net/menu5_7_5.htm). (검색일 2017.6.14.)